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어쩌면 올해는 힘들지 몰라요,  
 주저앉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곁에 있어주세요,  
 당신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제 1독서]** 이사 60, 1-6  
**[화답송]** 시편 72(71), 1-2, 7-8, 10-11, 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니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니이다. ◎

**[제 2독서]** 에페 3, 2, 3, 5-6  
**[복음 환호송]** 마태 2, 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 2, 1-12

성가	8시 미사	입당 487	봉헌 212 220	성체 188 197	파견 100
	11시 미사	입당 487	봉헌 212 220	성체 188 197	파견 100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공현대축일(1월 4일)		주님세례축일(1월 11일)		연중 제2주일(1월 18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토마스	1구역:황혜정데레사	임승원루카	2구역:이주황요한	정애리스텔라	3 구역
제 1 독서	강신호요한	1구역:최대연다니엘	최환준베네딕토	2구역:심태규미카엘	정일환프란치스코	3 구역
제 2 독서	김영선안젤라	1구역:염명련파트리샤	최수영베네딕타	2구역:심승화헬레나	정영희글라라	3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주님 공헌 대축일

요즈음 항간에 ‘인터스텔라’란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끌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20세기에 인류가 범한 잘못으로 식량 부족과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가 다가온 모습으로 시작하며 인류의 멸망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인공 쿠퍼와 동료들이 우주로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당시의 모든 과학의 도움을 받아 지구를 떠나 별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웜홀을 지나 블랙홀로, 차원을 뛰어넘으며 세상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주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인 아버지와 딸의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주님 공헌 대축일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인들의 조배로써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주님 공헌 대축일은 구세주의 영광과 하느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경축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표현된 그들은 전승에 의하면 오랫동안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면서 참다운 빛으로 오실 분을 연구하였고,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참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찬란한 별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빛나는 별빛 하나만을 믿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떠나 구세주 나신 곳을 향해 여행길을 나섰습니다.

그 여행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이자 화려한 왕궁에서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세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길을 나선 그들은 별을 통해 한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아주 초라한 마구간이었고 거기서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세상의 구원을 본 것은 화려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가정과 하느님 사랑의 결실인 아기 예수님이셨습

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경제적 어려움, 질병, 사고, 천재지변을 통한 고통, 전쟁 등 여러 가지 비(非)구원 상황을 체험합니다. 그 비구원 상황을 구원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학이나 기술, 경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혹은 권력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노력 안에 깃든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 상황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의 모든 노력과 역사 안에서 구원을 마련하신 방법은, 바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모습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온 세상에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 공헌 대축일이 가지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박제성 요셉 신부**  
**인천교구 청수 본당 주임**

생명의 말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은총과 선물로 주시는 새해를 맞아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고통과 전염병, 자연재해에 따른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들의 자식들은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하느님을 닮은 부모처럼 존엄을 지닙니다. 형제자매는 다양성과 차이를 보여주며, 본질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형제애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가정을 키워나가는 데에 근본이 되는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현실적으로 형제애를 끊어버리고 훼손시키는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날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이전부터 인간을 노예로 삼는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국제 공동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린이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에서조차도 가사 노동, 농업, 제조업이나 광업에서 많은 이들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생활과 노동의 조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굶주림을 겪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재산을 빼앗기고 육체적, 성적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많은 여성들이 강제 혼인과 정략결혼에 시달립니다. 장기 적출, 강제 징집, 구걸, 마약의 생산과 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 국제적인 위장 입양을 위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성인들도 있습니다.

테러 집단에 납치되고 구금되어 이용당하는 이들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예살이의 원인은 빈곤과 교육 기회의 부재, 부족한 일자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부패, 무력 분쟁, 폭력, 범죄, 테러입니다.

노예살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도회들이 피해자들을 돕고, 재활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법들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간 기구들은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협력하고, 교회는 이웃이 누구이든 그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무관심과 경제적 이유로 눈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네 형제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대와 형제애의 세계화를 위한 일꾼이 되어 그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고, 용기 있게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5년 제4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요한 15,15)

말씀의 향기

빛을 따라 갑니다.

다시 새해의 빛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새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평범한 인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인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득히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은 등에 빛이 업혀있었는데도 그것이 빛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빛에서 자꾸 멀어지고, 빛을 모른다고 했으며, 빛은 없다고 말했으며, 내가 빛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의 일입니다. 저는 스스로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립되어 있다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끝없는 좌절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뿐만 아니라 세상도 내 존재를 잊었다고 단정하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한 가닥 믿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결코 완전한 절망은 없다고, 반드시 어디에선가 빛이 나타나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극히 외롭고 가난한 마음일 때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솟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좀 난감하고 허황된 일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막무가내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삶의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때의 강인한 믿음이야말로 제 자존심이고 제 인생의 지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따뜻한 두 손의 정체는 빛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향점으로 인생의 순리와 순응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한한 은혜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보다 더 목타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랑이 바로 빛의 원리라는 것일요.

그러다가 내 눈이, 내 얼굴이, 내 몸이, 내 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은 목이 메이는 일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따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듯, 그리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듯, 그렇게 빛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예를 들었지만, 나같이 미미한 존재에 대한 빛의 발견도 그 빛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일이라면 동방박사와 무어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지속성 앞에는 늘 주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 탄생을 믿고 그 빛을 따라 가기만 하면 생의 길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해에 이런 믿음으로 오른발을 큰 몸짓으로 내어칩니다. 어디선가 지금도 주님의 탄생이 지속되고 그 빛이 내게 이른다는 기쁨을 내 안에, 내 집에, 내 이웃에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안다고, 잘 안다고, 그래서 이웃에게도 빛을 나누며, 나누면 다 빛이 된다고 새해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하려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평화를 빕니다!

신달자 엘리사벳  
시인

성경산책

성경산책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성경산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나만큼 알려진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테디 베스트 셀러이지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지만 또한 나처럼 반대를 받아본 책도 없어요. 인류의 역사와 문명에도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성경 저자들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 저자가 원저자인 하느님의 생각과 사상을 대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답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작년 우리 교구(서울대교구)는 ‘말씀을 공부하는 해’로, 그리고 올해는 ‘기도를 하는 해’로 사목목표를 정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것은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생활의 한 부분으로 성경을 읽도록 권고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를 통해 시작하고 기도 중에 이루어져야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담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올해 주보에 연재하는 ‘성경산책’이 성경과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튼튼해져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경산책’을 위한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중요한 내용을 쓰거나 문제를 푸는데, 혹은 자신의 느낌 등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모르면 신앙을 모르는 것이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스럽고 거룩한 책입니다.

♥ **광호 속을 채워 보세요.**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 )께서 메시아시며 ( )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 )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20,31)

♥ **아래의 성경을 찾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노트에 써 보세요.**

이사 40,1-11 / 집회 1,1-10 / 1베드 1,22-25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1월 4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박돈보스코	이골롬바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임레지나
	연	우마리아(춘)	조요안나
	연	박마리아/전대석	전데레사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본당신부님	사목평의회
	생	본당신부님	기체조반회원
	생	본당신부님	임루시아
	생	본당신부님	전데레사
	생	본당내 모든 봉사자	사목평의회
	생	본당공동체	송아가다
	생	미미헬렌페리가족	김엘리사벳
	생	대자대녀들가정	김엘리사벳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김그레이스(민정)	전수산나
	생	이마태오(영기)	익명
	생	한수산나(서연)가정	익명
	생	이아가다(윤자)	익명
1월 6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월 8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생	이정우	전수산나
1월 10일 토	생	자녀들	김카타리나
	생	대녀들	김카타리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96	201	-	297
헌 금	\$701	\$1,179	-	\$1,880

< 교무금 > \$6,860

허순구(11-12) 김찬근(6-12) 김영민(11-12)  
 최은용(9-12) 강수영(11-12) 손영호(1-12)  
 주봉진(7-12) 이정연(1/2015) 조상희(1/2015)  
 신우현(11-12) 김영자(12) 윤순의(11-12)  
 노용례(1-12) 이윤자(12) 이종주(10-12)  
 이종규(7-12) 이건용(1/2015)

< 성소후원금 >

이종규(7-12)

< Bishop's Appeal >

김영민(5-12)

< 감사헌금 >

익명 \$100 주봉진 \$500 김관용 \$100 익명 \$200

< 구유 예물 > \$1,342

< 성탄밤미사 > \$1,003

< 성탄낮미사 > \$2,127

~~~~ 오늘 간식은 배데레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2015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 전례 안내

1월 8일(목) 성시간

◆ 1월 15일(목)부터 1월 22일(목)까지 본당신부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2차 헌금

1월 18일 Seminary(신학교) 후원 2차헌금이 있습니다.

◆ 2015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주님세례축일 대부모/대자녀 만남의 날

일시 : 1월 11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내용 : 대자녀들께서 세례대부모를 초대

신청 및 문의 :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신청

◆ 모임

\* 또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사목회의 : 오늘 오후 4시 사목회장 댁

◆ 도서 구입 신청

성물방에서 <바오로딸>을 통해 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도서가 있으시면 성물방으로 1월 11일까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회계장부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장찬호 안드레아 510-357-5669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결산서와 행사보고서 및 2015년도 예산서를 총무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사목회 총무 510-292-5815

[ygandrew55@gmail.com](mailto:ygandrew55@gmail.com)

◆ 2015년 떡(간식) 신청 받습니다.

한 가정이 하면 \$300, 두 가정이 같이 하면 \$150씩

문의 : 성모회장 장희숙 루시아 510-372-7111

\* 2014년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유럽성지순례 모집

일시 : 4월 19일(일)~ 5월 1일(금) 12박 13일

지역 : 이스탄불, 아시시, 로마,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에

순례비용 : \$3,401(기사/가이드의 팁, 순례 중 물, 식당에서의 물 포함)

예약금 : \$1,501(Check 또는 Money Order)

신청마감 : 1월 25일(일) 30명 선착순

연락처 : 이 레이몬드 510-688-0157

◆ 오늘은 은행 휴무입니다.

◆ 10구역에서 구역회비 \$522.04 을 빈첸시오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안국학교 소식

- 1월 17일 : 마틴루터킹데이(휴강)

- 1월 24일 : 미술특강